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17년



관련기사 : 17페이지

Taos Ski Valley : photo courtesy of #taosskivalley

새해인사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입니다.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는 것처럼 2017년을
향해 우리 힘차게 울려 봅시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 한 해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 놓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따르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진심으로 보살피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2016년, 지난 한 해, 한인회에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사업체들 감사합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인회도 2017
년도에는 새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봉사해 나가는 단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이루어 부푼
가슴으로 마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붉은 닭의 해인 만큼 웬지 여러가지 설레는 일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힘내자구요!
우리 한인회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HAPPY
NEW YEAR!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멕시코한인회장 김영신 ■

2017년 1-2월호 내용

- 표지 | 새해인사 | 김영신 : 1
- 한인회소식 | 한인회장 선거공고 : 2
- 한인회소식 | 한인회 제9회 김치축제 : 3
- 한국학교소식 | 봄학기학생모집/글짓기 그림 대회 : 4
- 한국학교소식 | 겨울방학 캠프 : 5
- 지역사회소식 | 한인 지역사회소식 : 6
- 신년사 |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 김기천 : 7
- 수필 | 북위35도 | 이정길 : 8
- 생활상식 | YELP란 어떤 검색 사이트인가? : 9
- 인물소개 | 우주항공의 영웅, 한국전 참전용사 존글렌 : 10
- 신앙생활 |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 | 이태길 : 12
- 생활상식 | 말썽꾸러기 암 덩어리 | 김준호 : 13
- 성경공부시리즈 | 에베소서 1장 | 현용규 : 14
- 신앙생활 | 인생의 고난과 영광 | 윤성열 : 16
- 뉴멕시코소식 | 타오스 스키타운 미국의 베스트 : 17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9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0

한인회장 선거 공고

한인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제17대 뉴 멕시코 한인 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를 위해서 2017년 4월 1일 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동안 한인회를 위해 회장으로 봉사 하기를 자원 하시는 분은 이하의 절차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자격: 뉴 멕시코 한인회를 위해 2년 이상 이사 또는 임원으로 봉사해온 경력을 가진 분으로 타인의 모범이되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회칙 5조 1항 참조)

등록일자: 2017년 1월 25일(수) 10:30AM - 3:30PM

등록장소: 한인회관 KANM, 9607 Menaul Blvd.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구비서류:

1. 입후보 등록서 (서식은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E-mail로 문의하셔서 받으실수 있음)
2. 추천인 서명 (정회원 3인의 추천 서명, 등록서에 포함 되어 있음)
3. 공탁금 \$3,000. 입금 영수증 (한인회 은행구좌 Wells Fargo Bank)
*당선시 공탁금은 한인회 기부금이 되며 탈락시에는 기부금으로 \$1,500을 제한 \$1,500이 환불됨
은행 구좌 번호는 한인회 회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회계: 이 영혜 (Yong Reimann) (505) 553 - 9203

입후보자 공고: 2017년 1월26일 (목)

선거(투표)일자 : 2017년 3월11일 (토) 오후2시-4시 장소:한인 회관

당선자 발표 및 소감 발표: 투표/검표 후 오후4시 이후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새회장의 당선을 축하 해주시고 격려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최영혜, 이옥주, 김진화, 신광순, 최진

위원장 : 소피아 빈하월

E-Mail 주소 : houseofgod7@gmail.com

한인회 웹사이트: www.kaanm.com

 <p>Japanese Kitchen Steak House</p> <p>Indian School Rd Albuquerque, NM 1-40</p>	<h2 style="text-align: center;">Japanese Kitchen</h2> <h3 style="text-align: center;">제페니즈 키친</h3>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p> <p>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p> <p style="text-align: center;">www.japanesekitchen.com</p> <p>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p>	 <p>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p> <p>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p> <p>Phone: 872-1166 Fax: 884-8938</p> <p>www.japanesekitchen.com</p>
---	---	---

한인회소식

제9회 김치 축제

2016년 11월 5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멕시코주 한인회가 주최한 김치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소피아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공연 프로그램을 보면 1. 한국학교 어린이들의 꼭두각시 춤 2. 이경화 장로의 하모니카 연주 3. 박선숙씨가 이끄는 서아프리카 드럼 팀 연주 4. 이희정 예술부장의 검무, 장구춤 5. '홀라 댄스 스튜디오'의 댄스팀의 하와인안 홀라춤 6. 조재신 관장의 다이내믹 태권도 아카데미의 태권도 시범 7. 한인회 예무단의 부채춤 등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야외 텐트 아래에서 런치 박스(10불)를 나누며 공연을 관람했다. 실내에서는 한인회가 마련한 깍두기, 배추김치, 파김치, 오이 김치, 불고기 등을 판매했다. 한국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떡볶이와 수정과를 판매했다.

350명의 방문객이 이번 행사에 방문한것으로 추산됐고 8천 불의 수입이 있었다. 이번행사에 후원해 주신분을 열거하면 아래

와 같다. (편집인의 자료정리의 미급함으로 누락된분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해주길 바랍)

재정적 후원자 : 김영신, 조규자, 정풍자, 사무라이 식당, 민명희, 임경애, 최신옥, 김길자, 아리랑 마켓, 크리스 R, 임낸시, 스시하마, 최송자, 흥헌숙, 소피아 B, 권명자, 정복순

물품 후원 : 마자원, A1 마켓, 김스 마켓, 흥파오, 여미 레스토랑 자원 봉사자 ; 고영분, 김다련, 김소라, 김옥선, 김진화, 김태원, 류정남, 박애나, 박연복, 박혜승, 신기준, 유금님, 윤진옥, 윤태자, 이옥주, 이은주, 정혜경, 허명순

김치 후원 : 감리교회(깍두기), 주님의 교회(오이 김치), 천주교(파김치)

*상세한 내용과 더 많은 관련 사진은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facebook.com/voiceofnm 과 링크된 아리조나 타임즈에서 볼수 있다 ■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7 년도 봄 학기 학생모집

- 개강날짜: 2017년 1월 28일(토) 오전9:15- 오후 12:05 2017년 2월 2일 (목) 오후 5:30-7:30
- 대상: 유치원 - 12학년, 성인반
- 과목: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 (한국 문화/역사, 미술, 동요, 고전)
- 등록처 : 한국학교 사무실
문의: 박영신 교장 (505) 506-6936, NMKorean-language@gmail.com
- 수업료: 학기 150불 (목요일 또는 토요일 수업을 선택할수 있음)

2016 Spring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The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invites you to the 2017 Spring school year with highly motivated and qualified teachers.

- First Day: Jan. 28 (Saturday) 2017, at 9:15am thru 12:05pm
Feb. 2 (Thursday) 2017, at 5:30pm thru 7:30pm
- Enrolling: K - 12th grade, Adults
- Subjects: Korean-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cial courses- Korean History & Culture, Art, Music
- Register: NM Korean Language School
Contact: Youngshin Park, Principal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505) 506-6936, NMKoreanlanguage@gmail.com
- Tuition: \$150 (You choose once a week either on Thursdays or Saturdays – Please indicate preference during registration)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www.kaanm.com/home/kschool

글짓기와그림대회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마지막 날을 통일에 관한 글짓기와 그림대회로 마무리하였다. 이 행사는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의 주최로, 뉴멕시코 분회가 주관하고 후원하여 이 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역사적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임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북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랑스런 국가임을 가르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었고 주제는 “내가 꿈꾸는 통일된 대한민국”이었다. 통일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에서는 한달 동안 아이들에게 6.25 전쟁과 태극기, 무궁화 등 한국과 관련된 사건들과 한국을 상징하는 매개체 등을 가르쳤고 매주 통일부에서 지정한 홍보영상을 함께 보았다. 대회 당일에도 통일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눈 후, 이를 토대로 미리 준비된 원고지와 도화지에 각자의 작품을 펼쳐 나갔다.

이 대회에서 1등은 류인호 군이, 2등에는 한서희 양과 건우 아오 군이, 3등에는 박지우 양, 한준희 군, 헬리 리드 양이 수상했다. 1등을 차지한 류인호 군은 소감에서 한글로 남과 북의 상황,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기가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모두 재미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며 그 포부를 전했다. 1 등에게는 한국학교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150불의 상금이 주어졌고 2등에게는 각각 100불, 3등에게는 각각 50불의 상금이 주어졌다. 또한 참석한 모든 학생에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3D 입체 볼펜 세트와 스낵백이 주어졌다.

박영신교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쉽게 다루지 못했던 남과 북의 상황, 이념의 차이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교사들에게도 뜻깊은 행사가 되었고, 특히 이 행사를 직접 제안하시고 이를 위해 라스쿠르시스에서 직접 앨버커키까지 오셔서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뉴멕시코 평통 분회장장인 조규자 전회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직접 오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김영신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겨울방학캠프

뉴멕시코주 통합 한국학교는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으로(\$1,500) 겨울 방학 캠프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열었다.

12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종대왕 역사 문화 캠프가 이어졌다. 이 행사를 위해 한인회 어버이회(윤태자 회장)에서 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캠프 준비를 위해 500불을 지원했다.

캠프에는 학생 20명, 박영신, 정지혜, 이다나, 박장한 등 6명이 참여했다. 방학인 관계로 기존 교사 참여가 어려워 신규교사 2명이 참여했다.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졸업 후UNM 수학과 박사과정 중인 박참솔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인 김소윤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쳤다.

10년 이상 한국학교에 소속된 정지혜 교감은 겨울방학 캠프 전반을 지켜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 및 젊은 교사들이 일주일에 여러 차례 모여서 아이디어회의 등으로 캠프 준비를 꼼꼼히 했다. 종강 후 짧은 시간에 준비했지만, 성실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줄로 안다”고 했다. 점심시간은 주 요리인 짜장면, 불고기를 정지혜 교감 선생이 준비해 학생들이 직접 먹는 만두와 3색 경단으로 꾸러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세종대왕에 관한 북아트, 랩북을 주 프로그램으로 했다. 랩북이란 학생 스스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파일에 모아 다양하게 구성하는 일종의 마인드맵 원리를 이용한 공부 혹은 놀이로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육법이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

를 낸 이다나 선생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과 연결해 다방면으로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짧은 이틀간의 일정이지만 캠프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세종대왕과 그 당시의 과학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을 것이다. 해시계와 측우기를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신 교장은 “아이들이 아주 들떠 있고 너무 즐거워한다. 전체 참여한 20명 중 새 친구가 반을 차지한다. 캠프 수업결과가 좋아서 다음 학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에 한국학교에 등록했다가 쉬고 있는 학생 혹은 학부모들로부터 새로운 학생들을 소개받았다. 학교가 더욱 성장해서 더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내년 여름방학에는 문화, 의식주를 주제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캠프 운영의 소감을 밝혔다. ■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랩북



뉴멕시코 한인 지역사회 최근소식

한인회 추수감사절 오찬



뉴멕시코주 한인회는 11월 23일 한국참전 용사들과 노인회 회원들을 모시고 추수감사절 오찬을 나누었다. 한해를 돌아보고 한해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음식과 교제를 나누었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 Jerry Chapman 회장은 건강이 좋지못해 불참이었고 Stan Jarocki 부회장을 포함하여 여섯분이 참석했다. 해마다 노령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분이 늘어나서 참석하는 참전용사가 줄어드는 안타까움을 실감할수 있었다. ■

UNM Press 출판 작가 사인회

‘Shiny Happy Holidays’라는 주제로 뉴멕시코대학 출판사 작가 사인회가 12월 2일 금요일 뉴멕시코대학 서점에서 있었다. 6명의 참가 저자중 하나인 이경화 장로는 손님으로 찾아온 LOBO(UNM상징 캐릭터)와 잠시 포즈를 취했다. ■



한인회 어버이회 성탄 프로그램

성탄절을 맞아 한인회 어버이회(회장 윤태자)에서는 12월 21일 수요일모임에서 어버이 회원들에게 손말레씨가 기증한 수건과 A-1 한국식품(신옥주)에서 기증한 핸드크림을 전하였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정길 교수가 준비한 한국의 명산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감상하며 좋은 시간을 갖었다.

뱀부 익스프레스 새 식당 개업

로스루나스에서 22년 동안 레스토랑을 경영한 음식관련 전문가인 가미경 씨는 판다 익스프레스와 같은 계통의 음식 Bamboo Express를 오픈했다. 중국 부패식 식당 Tai's Chinese Restaurant, Asahi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중국식 레스토랑을 재 개업하여 로수 루나수 주민들에게서 인기와 사랑을 받고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고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11시에서 오후 8시까지이다. 일요일은 닫는다. Phone: (505) 866 6888 주소: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日本の食品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8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6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t.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닭소리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지난 한 밤은 무척이나 캄캄하고 무서웠습니다. 보통 보내던 정상적인 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 밤이었지요. 보통 때면 잠을 자러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선생님은 팜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애를 쓰시며 기도를 하셨지요. 베드로는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선생님 옆에서 졸다가 자면 선생님이 와서 깨우시곤 하셨지요. 그렇게 몇 번이나 자다 깨다 하던 중에 갑자기 햇불을 켜든 한 무리들이 선생님을 잡아 가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지요.

놀란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고기나 잡던 제자들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선생님이 나서야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선생님은 전혀 거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선생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지요. 그래도 제자 베드로만큼은 그냥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따라가 본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심문 받으러 끌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제사장의 집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었지요. 베드로는 선생님이 걱정이 되어 그 집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자신이 말형 노릇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비정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여기 제사장의 집 뜰에서였습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이나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때마다 베드로는 선생님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선생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생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던 베드로였습니다. 한 때는 선생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선생님을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같은 닭 울음소리라도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소리였습니다. 이전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소리였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몹시 통곡하였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2017년 닭의 해라는 정유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들려오던 소식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워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기까지 만들었지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 테러, 재난들 또한 우리를 슬프게 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새해를 밝히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현재 해결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현재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지요.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에는 희망과 절망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새해 2017년은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의 가정에 희망찬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북위 삼십오도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거나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서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저기 옮겨 사는 사람도 많다. 산다는 것은 곧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상황보다 자연 환경이다. 그래서 나처럼 다 늙은 나이에 멀리 타국으로 옮겨 사는 사람은 새로운 곳의 자연 현상에 잘 어울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서남부에 있는 뉴멕시코 주는 풍경이 독특하다. 크기로 다섯 번째의 넓은 주에 인구는 2백만에 못 미치며, 총면적의 85 퍼센트가 해발 1,200미터 이상이다. 록키 산맥의 끝자락이어서 북부에는 해발 4,000미터의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고도가 낮아져 800미터 이하의 저지대도 있다. 이러한 지표면 높이의 심한 차이가 동식물의 서식에 크게 영향을 미쳐, 무려 여섯 가지의 생명대生命帶가 존재한다.

주 전체가 전형적인 온대 기후를 보인다. 그러면서 연간 평균 강수량이 33밀리미터에 불과한 곳도 아주 많다. 그런 곳은 말 그대로 사막, 고지 사막이다. 시가지를 벗어나면 황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다. 건조한 공기가 기온을 낮에는 빨리 흡수하고 밤에는 빨리 방출해버려서 섭씨 20도를 웃도는 일교차를 만들기도 하고, 주유소에 가면서 물병을 들고 가면 그 사람은 분명 뉴멕시코 사람이라는 농담을 날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농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살아온 인디언들은 일찌감치 건조지 농경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장 큰 도시 앨버커키가 주의 중심부, 해발 1,600미터의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3,200미터의 커다란 샌디아 산맥이 동북쪽을 감싸고, 서쪽에는 꼭대기가 평평하고 주위가 급경사를 이룬 탁상지 메이사가 있다. 콜로라도 주의 서남부에서 발원하여 뉴멕시코 주를 관류한 다음 멕시코 만으로 빠지는 리오그란데가 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일찍이 철도가 놓여 교통의 요지가 되는 바람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곳이다. 가장 큰 이민집단은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으며, 레바논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수많은 천식 환자들이며 폐결핵 환자들끼리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요양하면서 치료하려고 왔다가 주저앉은 곳으로, 천혜의 요양지다.

나주 평야 곡창 지대에 있는 산포 등수리는 내 태 자리다. 평평한 들판에 들어앉은 시골마을, 오곡이 풍성하게 생산되어 인심 좋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안채 뒤의 넉넉한 텃밭에 온갖 야채를 심어 먹었다. 마당 한 켠 흙벽에 맞대어 닭장이 있었고,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병아리를 거느린 암탉은 조릿대를 엮어 만든 가리에 따로 가두어 보호했다. 담장 곁의 우리에서는 암탉지가 일년에 두어 번 새끼를 쳤다. 누렁이는 사람들이 일하러 들에 나가고 없는 사이 집을 지키고, 외양간의 황소는 상머슴과 함께 경작의 주역이었다.

빛고를 광주는 제2의 고향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성장하고, 교육 받고, 직업 갖고, 가정을 꾸려 살다가 정년까지 맞이한, 내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곳이다. 무등산에서 가까운 곳을 옮겨다니다가 아예 산기슭으로 이사하여 산 것이 모두 50년을 넘는다. 집을 나서서 찾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산으로 오르는 가파른 오솔길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등산로를 가진 힘들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산, 한 주에 여러 번 올라도 싫증나지 않는 산이었다. 철철이 갈아입는 옷은 또 얼마나 멋지던가. 쏟아진 함박눈을 인 정경은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못하게 했다. 사철, 집에서든 올라가서든 즐겼던 내 정원이었다.

위도는 경도와 함께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다. 지구는 적도를 0도로 남북으로 각각 90도로 나뉘지만, 기후에 따라



다섯 개의 위도권으로 크게 나뉘기도 한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과 내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앨버커키가 모두 온대인 북위 35 도선에 있다. 우연일까? 정년 뒤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애써 찾아온 것도 아니었는데, 인구는 적고 땅덩이는 넓은 뉴멕시코는 자연과 많이 접촉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어서 문득문득 어릴 적 내 고향을 느끼게 한다.

앨버커키와 광주의 춘하추동은 15시간의 차이를 두고 똑같이 바뀐다.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가 만리 이역에서 살고 있는 나를 지켜준다. 사철의 변화 가운데 가을만큼 계절의 느낌이 각별한 때가 있을까? 앨버커키의 가을은 각종 과일과 농산물이 넘쳐나서 더할 수 없이 풍요하다. 어릴 적 고향마을에서 한가위 무렵이면 느끼고는 하던 바로 그 풍요로움을, 가게 밖 인도에 쌓아놓은 황금색 호박은 버가 누렇게 익어가던 가을 들판을 떠올려준다. 고추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생산되어 이곳 한인들이 김치 축제를 열게 만들고, 빨간 장식으로 내걸려, 집에 오는 손님을 환영하기도 하는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도 영락없는 내 고향 가을 하늘이다. 나는 지금 아주 많이 자연과 접촉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누린다. ■

YELP란 어떤 검색 사이트인가?



여행도중 낯 선 도시에 와서 저녁식사를 할만한 식당을 찾아가야 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서 식당 검색을 하는경우가 많다. 휴대폰에 나오는 YELP란 앱 (APP)을 두드린다. 검색 메뉴가 뜬다. 레스토랑, 커피숍, 주유소, 쇼핑, 메디칼(의료)등 여러 제목중에서 레스토랑을 클릭하면 여러개의 식당 이름이 검색되어 나온다. 조금 더 검색 범위를 좁혀서 가령 Korean food라고 돌보기 모양의 그림있는 검색 제목칸에 입력해주면 한국음식을 먹을수 있는 식당들이 나타난다. 현재 내가 위치한 지점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몇 마일이 되는지 마일 수치도 함께 나온다. 식당중 하나를 클릭하면 식당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오고 손님들이 올린 댓글(리뷰)을 읽어 볼 수 있다. 손님들이 올린 평점에 의해 매겨진 별점이 표시되어 5개의 별을 만점으로써 점수가 매겨진 것도 보게된다.

이와같은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식당 검색, 또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검색 서비스를 해주는Yelp(옐프)란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 볼려고 한다. YELP회사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지역 비즈니스의 고객이 올린 리뷰를 보여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웹사이트 주소는 yelp.com이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 들어가본 식당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았든지 맛 좋은 음식을 즐겼을 경우에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수 있게하고 반대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손 쉽게 여러 손님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참작할수 있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Russel Simmons와 Jeremy Stoppelman 두사람이 Yelp Inc. 회사를 창립했다. 2009년 구글이 5억달러에Yelp를 인수하려고 했으나Yelp는 이를 거절했다. 2011년 Yelp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했고 2012년 뉴욕증시에서 상장거래된 주가는 15달러로서 자산은 8억9800만달러였다. 유럽에서 경쟁대상이었던 Qype회사를 5000만 달러에 매입하고 이듬해 CEO Jeremy Stoppelman은 자신의 봉급을 1달러로 내리고 회사를 키우는데 열중했다.

Yelp는 계속 확장해 나갔지만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부터이다. 광고주로 부터 들어오는 광고료 증대와 구글의 로컬 비즈니스 검색 알고리즘(Algorithm)의 개선이 수익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해에Yelp의 서비스는 일본, 멕시코, 독일로 확대되어 나갔다. 2016년 에 와서 yelp.com 사이트 월 방문자수는 1억3500만 명이 되며 9500만의 리뷰가 올려지고 있다. 2016년 2월이후 옐프 주가는 계속 상승하여 12월 21일 현재 주가는 2월의 주가의 두배가 넘는 \$38 선에 이르렀다.

식당 비즈니스에 있어서Yelp는 체인점 식당이 아닌 비체인점 식당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더 많다고 한다. 체인점 레스토랑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동일한 메뉴와 검증된 품질을 기대할수 있는 반면에 비체인 레스토랑일 경우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음식과 서비스의 수준을 알 수 없어 선택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를Yelp의 리뷰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시애틀 지역에서 얻은 통계를 보면 별점 평점이 1개 더 높을 수록 매출이 5~9%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볼때 좋은 리뷰가 많아서 높은 평점을 얻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간혹 부정적 리뷰로 인한 피해를 볼수도 있고 고의적인 부정적 리뷰나 의심되는 지나친 찬사를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과 알고리즘의 변동으로 인해 별점 평점이 낮아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서 법적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Yelp가 검색 하는 대상은 식당같은 맛집 찾기에서 머물지 않고 훨씬 넓은 범위로 확장 되고 있어서 개인 비즈니스 검색에서부터 병원, 치과의사, 요양원 같은 큰 기관에도 이르고 이제는 교회도 올려져 있다. Yelp에서 Korean Church로 검색을 하면 앨버커키에 있는 네 한인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교회를 쉽게 찾아갈수 있게 구글지도도 함께 나온다.

개인 비즈니스에서Yelp를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예로 맥스 기자의 얘기를 소개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맥스라는 기자의 아이폰 홈버튼이 고장나서 애플 매장으로 찾아 갔더니 \$200을 들여서 아이폰을 교체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다. 너무 비싼 비용이어서 교체를 포기하고 고심 하다가Yelp 앱에서 아이폰 수리를 하는 비즈니스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찾아 갔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에 있는 어느 낡은 건물7층에 작은 방을 세 얻어 경영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30대 주인이 아이폰 수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Yelp에서 140명 이상이 5개의 별점을 준것으로 보아 믿을만 한 수리점으로 생각하고 맥스라는 기자는 고장난 아이폰을 맡겼다. 30분이 안걸려서 아이폰이 수리 되었고 수리비는 애플 매장에서 받은 견적가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해결되었다. Yelp를 통해서 신용을 쌓은 비즈니스는 값비싼 세를 내고 교통이 편한 상가에 가게를 차릴 필요가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Yelp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도 없지않다. 한 순간의 실수로 손님에게 잘못된 일이 악성 댓글로 올려져서 한 사람의 의견이 마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때 기업주가 받는 타격은 클것이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어떤 한인 업소에서는 매달 한번씩 경영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서 그달에 올라온 댓글을 함께 검토하고 좋은 댓글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회식을 통해 자축하게 하고 반대로 나쁜 댓글이 올라 왔을 경우에는 적절한 개선책을 의논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Yelp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업소가 있다고 한다.

Yelp는 비즈니스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매체로서 애용되는 견고한 자리에 올랐다. 소비자들은Yelp에서 댓글을 대할때 소수의 악성 비판이나 과장된 극찬도 있을 수 있다는 예비 지식을 갖고 리뷰를 검토 한다면Yelp는 편리한 도구가 되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글: 편집부) ■

우주항공의 영웅, 한국전 참전용사 존 글렌

1962년 머큐리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프렌드십7호를 타고 지구를 3바퀴를 돌고 귀환해서 미국 최초의 지구궤도를 순회한 우주인으로 알려졌고 후에 정치에 입문해 오하이오주 대표로 미국 상원의원으로 24년간 일했던 존 글렌이 95세를 일기로 지난 12월8일 목요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의 풀 네임(Full name)은 존 허셸 글렌 주니어(John Herschel Glenn, Jr.)이다. 그는 남달리 두가지 경력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물이다. 우주 비행사의 경력과 정치가의 경력, 성격이 전혀 다른 두가지 경력을 모두 멋지게 장식하고 생을 마감했다.

존 글렌이 우주 비행사가 되기 전에는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 파일럿으로 복무했고 이어 테스트 파일럿으로 복무 하였고 이 기간중에 최 단시간(3시간23분) 미대륙 횡단 무착륙 비행 기록도 수립했다. 1957년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머큐리7계획”에 참여해서 7명의 우주인의 하나가 되어 프렌드십7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3번 돌고 대서양에 귀환했고 NASA에서 퇴직한뒤

1974년 오하이오주 대표 상원위원으로 당선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4년동안 상원위원으로 정치인의 경력을 쌓았다. 잘 나가던 그의 경력에서 단 한가지 차질이 있었다면 198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받고져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의 긴 정치 경력을 마감할 때에 이르러 1998년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주인으로 돌아가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STS-95)를 탑승해서 최연로 우주인 기록도 세우는 영광을 얻었다. 컬럼버스시의 공항이름이

존 글렌 국제공항이라고 지어지고 클리브랜드에 있는 NASA 연구소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공립학교 이름이 존 그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을 보면 그는 미국민으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인에게 존 글렌은 최초의 지구 궤도를 돌고 온 우주인으로



Discovery STS-95 승무원으로 9일간의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존 글렌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같다. 그가 해병대 전투 항공대에 소속으로 2차대전에 참전하여 마셜제도 전투에 투입되어 F4U Corsair 항모 탐재기 파일럿으로 공을 세웠고 1950년 6.25한국전이 터지자 전투기 파일럿으로 한국전에 다시 참전하게 되었다. 포항에 기지를 두고



존 글렌은 F9F Panther 전투기 파일럿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원산 상공에서 찍은 사진



존 글렌은 F-86 Sabre 전투기 파일럿으로 한국전에서 MiG 전투기에 대해 싸웠다.



존 글렌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Friendship 7 캡슐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 12월7일 작전을 개시한 VMF-311해병공격 비행대대 소속으로 F9F 판다 (Panther) 제트 전투기 파일럿으로 참전한 것이다. 존 글렌은 해병대 지상군 엄호를 위해 63회의 출격을 했다. 이 당시 존 그렌은 두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번은 저공 비행시에 대공 사격을 받아 총탄을 뒤집어 썼으나 다행히

엔진에는 이상이 없어 무사히 기지까지 되돌아 올 수는 있었다. 착륙후에 기체를 점검해보니 기체와 날개에 총구멍이 200개가 넘게 나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친구 파일럿으로 테드 윌리엄스의 얘기도 잘 알려져 있다. 테드는 후일 메이저 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었다. 테드 윌리엄스는 존 글렌이 전투중에 죽을뻔한 자신을 구해 주었다고 후일 고백했다. 출격해서 지상군 엄호 작전을 하던 중 지상포화를 받아 테드의 비행기 후미에 불이 붙었었다. 이를 뒤에서 본 존 글렌은 불붙은 테드의 제트기 옆으로 바짝 날라가서 엄지손가락을 올려 세우며 빨리 고공으로 올라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제트기가 고공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적어지는 까닭에 불을 끄게 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제트기가 올라갈수 있는 최고 고도까지 올라갔을때 다행히 불이 꺼졌고 비행기와 조종사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존 글렌의 침착성과 전우애에 의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테드의 비행기는 몇초 뒤에 북한 상공에서 공중 폭발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 후일 보스턴 레드삭스의 유명한 야구선수, 521개의 홈런을 날렸던 테드 윌리엄스의 야구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수한 속도를 내는MiG-15제트 전투기가 투입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군은 F-86 세이버(Sabre) 제트 전투기를 투입했는데 존 글렌은 다시 세이버 제트



한국전 당시 해병 비행 대대 파일럿 존 글렌

전투기 파일럿으로 재 배치되어MiG전투기를 대항해서 싸워야 했다. 세이버 제트 파일럿으로 27회의 출격임무를 수행했고 공중전에서 MiG전투기를3대를 격추 시키는 전과를 세웠다. 1952년 6월 휴전이 지연되고 있을지음 압록강 수풍 수력발전소 폭격 작전이 미 공군과 함께 대대적으로 치러졌는데 여기에도 존 글렌의 해병 비행 대대가 참여했다. 그당시의 수풍 발전소를 격파시키는 작전은 총 250대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2일에 걸쳐 출격 했어야 하는 아주 힘든 작전이었다고 한다. 수풍 발전소의 격파로 북한 전역의 전기공급이 한 동안 완전 마비되었고 이 작전의 승리는 그당시 지연되고 있던 휴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하는 결과를 준것으로 믿어진다. 존 글렌은 2차대전과 한국전을 통해서 모두 15개의 메달 또는 훈장을 받았다.

존 글렌이 한국에 있는 기간중에 해군 신형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에 지원했었는데 1954년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 있는 해군 테스트 파일럿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존 글렌이 받은 메달과 훈장을 의미하는 리본. 한국전에서 받은 4개의 메달이 포함된다.

받고 신형 전투기 테스트 파일럿이 되었다. 195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까지 대륙횡단 무착륙 비행을 3시간 23분에 마치는 기록을 세웠다. 3번에 걸친 공중 급유를 받을때를 제외하고는 초음속 속도로 비행했다. 존 글렌은 오하이오 주 자기가 살던 고향 마을을 지나면서 음속 돌파할때 일어나는 소닉붐(Sonic Boom:음속 돌파 폭음)을 내어서 고향 사람을 놀라게 하고 지나갔다고 전해진다. 작난기가 많은 파일럿으로 보인다.

존 글렌이 그의 생명에 가장 위험했던 고비를 넘긴 일은 미국 우주항공국 (NASA) “머큐리7계획”에 들어가서 1957년 프랜드쉽7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돌 때였다. 지구궤도를 3번 돌았을때 그가 탄 캡슐의 열 차폐 구조에 이상이 센서에서 감지되어 대기권 진입시에 3000도로 올라가는 표면 온도에 견뎌낼 것인지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다. 다행히도 캡슐은 고온에 잘 견뎌내어 존 글렌은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지만 지상 관제 팀은 가슴을 조이는 긴장의 순간을 보냈었다.

존 글렌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1921년7월18일 오하이오 주 캠브리지 타운에서 출생했고 뉴 콘코드 타운에서 성장했다. 10살때 트럼펫을 불어서 타운의 밴드에 가담 했었는데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몰장병 위령 나팔로 탭스(Taps: 취침 나팔 또는 위령 나팔)를 불었다. 두개의 트럼펫이 산울림처럼 주고 받는 곡으로 편곡된 탭을 불렀다. 이때의 경험이 글렌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저절로 몸에 베이게 되었다고 존 글렌은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다. 어린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받는 영향이 이렇게 클수도 있음을 볼수있다.

그는 하늘을 나른다는것, 비행(Flight) 자체를 어려서 부터 노인이 되도록 평생 좋아했다. 존 글렌이 어린 아이 시절에는 뒷마당 잔디밭에서 양 팔을 벌리고 마치 자신이 비행기가 된것 같은 흥내를 내면서 뛰어 다니며 노는것을 자주 보았다고 존 글렌의 아버지는 여러번 얘기했었다. 컬럼버스 공항 근처를 지나가는 일이 있을때 마다 어린 존 글렌은 부모에게 공항에 가 보자고 졸라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것을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태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를 묻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는 예정론을 강조하던 칼뱅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었지요. 반면에 감리교나 성결교 등의 교리는 알미니안 주의의 중심인 자유의지론에 기초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말입니다. 결국 칼뱅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란 질문은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에 기초하지요. 예정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한다면 또한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구원받고 저주받는 것조차 다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인간의 결단 즉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John Calvin



James Arminius



John Wesley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은총(Prevenient Grace)”이라는 사상은 사실 알미니우스(Arminius)가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미리 정해 놓은 이 길,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 인간이 덜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칭의, Justification)해주시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Grace of Justification)이 함께 도우시지요. 이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덜된 인격을 다듬는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단계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성화(聖化, Sanctification)라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성화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한 인간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돕지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榮化, Glorification)이지요.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중심이긴 하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순종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구원론이지요. 뭐 좀 복잡하게 말하면 신인 협동 구원론(Synergism)이라고 하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이 두 주장의 대립이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거스틴 시대라고 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예정론을 주장했던 어거스틴은 카르타고 회의(주후 418)를 소집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정론을 주장했던 칼뱅의 입장을 옹호하는 고마루스(Gomarus)와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던 알미니우스(Arminius)의 논쟁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루스는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지요.

문제는 성경을 뒤져보면 바울의 글들 안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과 같은 요한의 글들을 보면 인간의 결단 즉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나 틀리냐?”라는 질문을 성경의 한쪽만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버리겠다는 말과 같지요. 성경에는 모두 들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둘 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예배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게 된 것을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론 입장에서 보면 우리끼리 우리의 의지만으로 식사자리가 마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요.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자리를 계획하셔서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침 식사하는 이 자리와 지금 한 순간 한 순간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미리 택정하셨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고백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하고

>19페이지로 계속>

말썰꾸러기, 암 덩어리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어느덧 2016년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알구진 사람이 비꼬았어요. 나이가 40 세면 시간이 40 마일로 지나가고 60 세면 60마일로 가고 80 세면 엄청난 고속도로 지난다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물가물 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탓하고싶지 않아요. 이런 찬송(459장)있잖아요 ?

“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와 !!! 금년에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수 없다는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자나 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회 생활”중 에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김기천목사님으로 부터 상세하게 배우고 있는데 교회에도 우리들이 미처 몰랐던 끔직한 암덩어리가 있다는것을 배우면서 나의 소견을 우선 이야기 하고,다음은 인체내에 서 만들어지는 말썰꾸러기 암 덩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1. 말썰꾸러기 #1

우리기독교에서 말하는 암덩어리는 두말할것도 없이 이단들이다. 특별히 한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가소로운 이단들이 많다는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농간에 사람의 마음이 쏠리고 쇠뇌가 될까 이해가 않된다. 내 추측은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탓일것이다.나는 그들의 이름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이렇쿵 저렇쿵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허망한 적그리스도의 그럴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것들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1.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2 절 “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라.

2. 혼잡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2:17 절 “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2:4-5 절 “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 사사로이 풀이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1:20-21 절 “ 먼저 알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지 사람의 뜻으로 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것임이니라. “

5.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6 절 “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

6. 억지로 풀지 말라.

베드로후서 3:15-16 절 “ 또 우리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독자 여러분들, 이단들이 상기한 6 가지 종목들을 전부 무시하고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엉터리 없는 소리들을 내 뱉고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것입니다.

>말썰꾸러기 #2를 다음호에 계속합니다.>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CM, Dipl OM, Dipl Ch, Lac

보통의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성경공부 시리즈 #2

에베소서 1장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지난호에서는 에베소서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번호는 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다.

1-2: 인사

(1)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이고, 평강 (샬롬)은 히브리 (유대) 인들의 인사이다. 은혜는 “그대에게 기쁨이 있기를”이고, 평강은 “그대에게 평화가 임하기를”이란 뜻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를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도 원수처럼 담을 쌓고 미워하며 살았을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부류의 대적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이 주어 졌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담을 헐어 버리시어 이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리낌없이 서로 “은혜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 서신에는 항상 이 두 부류의 고유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 두 인사법이 등장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축축히 배어 있다.

3-6: 찬양 받으실 하나님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쁜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만 갖고 계시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죄인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여기심의 성품도 있으셔서, 본문에 나타나는 예정의 교리가

가능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교리의 중심이다.

그 풍성한, 무조건적인, 거저주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다른 이들,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베푸는 봉사의 일이다.

거듭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한가지 은혜가 식거나 떠나가면 마귀가 즉시 찾아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되니, 깨어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7-12: 죄인을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찬양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 (거룩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일) 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 (대속) 하시어, 죄의 노예였던 죄인들을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구속) 구원의 은혜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적 이상의 어떤 기적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물은 에덴동산의 타락이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몸으로 통일, 회복되어, 창조당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회복된다. (찬송가 403장).

9-10 절에서 “그 뜻의 비밀”이란 하나님과 죄인간에 막혔던 담, 유대인과 이방인간, 인간과 만물사이 각각의 담들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합, 일치, 통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뜻이다. (요 14:20 성취).

11절의 “기업” 이란 두 가지 면이 있다. 즉 거듭난 신자의 기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고 하나님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13-14: 제 3위 하나님, 주 성령의 사역 찬양

(13)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하시며,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안에 내주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성결의 삶 (성화)을 살게 하신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상의 사실들에 대하여 약속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이다. 성령님 통해 지금 우리가 맛보는 매일 매일의 기쁨의 맛은 장차 우리가 맛 보게 될 영원한 기쁨의 극히 작은 맛에 불과하다.

15-23 바울의 기도

(15)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능력은 본문에서 두가지 뜻으로 풀이 된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총명은 그 뜻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둘을 영적 통찰력이라 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능력이다.

이 기도의 요지는 우리가 받은 기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의 풍성함과 그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유기적,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해 달라는 것이다. ■

우주항공의 영웅,한국전 참전용사 존 글렌

>11페이지에서 계속>

구경하고 오는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90세가 되도록 개인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것은 곧 평생동안 비행기 사랑이 지속된 것을 말해준다.

1962년 프랜드쉽7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돌고 귀환하여 뉴욕시 거리에서 환영 퍼레이드 (Ticker-tape parade)를 받았고 상하원 합동 국회에 초대 되어 연설을 했던 저녁, 백악관에서 오찬을 나눌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글렌에게 정계에 입문할 것을 권했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NASA에서 퇴직한뒤1974년 존 글렌은 오하이오주 상원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연거퍼 재선에 당선되어24년간 정치인으로 새로운 경력을 쌓았다. 오하이오주 상원위원으로는 최장기간 기록이 된다. 그가 77세 되던해에 상원위원 퇴직 전에 다시 NASA로부터 우주인으로 초대받아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을 타고 - 첫번 지구궤도를 돌때는 5시간이 못 미쳤으나 왕복선의 경우는 9 일간의 우주여행 - 돌아옴으로 최연로 우주인의 기록도 세웠다.



존 글렌과 부인 Anna 1965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는 동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기자들에게 존 글렌은 말하길, “우주공간에서 내다보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모든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을것 같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로움을 고백한 것이다. 그가 늘 말 했던 대로 그는 과학과 기독교 믿음은 서로 공존하며 나갈수 있다고 한 종교관도 그의 고백속에서 느낄수 있다.

9일간의 우주 여행에서 귀환한 뒤에 존 글렌은 부인인 애니 (Annie)에게 다음에 기회가 오면 부부 동반해서 우주 왕복선을 타보자고 하자, 부인 애나는 ‘나 죽고 나면 내 시체를 데리고 가라’고 조크했다고 전해진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애나와의 결혼 생활과 부부 사랑 역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고 한다. 73년간 부부였던 애니와의 존 사이에 자녀로 존과 케로린이 있다.

그의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명복을 빈다. 영어로 말한다면 “Godspeed, John Glenn” 이라고 말하고 싶다. ■ (글: 이경화)

인생의 고난과 영광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

벌써 40년전 일이다. 당시 18세 청년이었던 나는 7월초 어느날 아침 ‘습관을 따라’ 신문을 펼치다가 1면 머리기사 제목에 그만 “와!” 하는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스라엘 특공대, 우간다 엔테베(Entebbe) 공항 강습, 테러리스트 사살 및 인질 전원 구출!’ (신문읽기는 아마 국민학교 4학년 때쯤부터였는데 나는 늘 저녁 과외공부 가기 전 당시 한창이던 월남전 전투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친구들에게 매일 정례 브리핑을 하곤 했는데 매번 개들은 입을 딱 벌리고 듣곤 했었다.)

그 며칠 전 6월 27일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및 독일 적군과 소속 테러리스트 4명이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 139편을 납치하여 당시 악명높던 독재자 이디 아민의 우간다 엔테베

(Entebbe) 공항에 착륙시킨 후 이스라엘 승객들 106명을 마지막 인질로 잡고 협상을 벌이던 중 이스라엘의 최정예 특전대 ‘사예렛 마트칼(Sayeret Matkal)’ 100명 용사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감암한 밤에 4대의 수송기로 공중급유를 받으며 고도 100

ft. 초저공으로 전술비행하여 무려 5000킬로미터 (약 3천 마일)를 7 시간 동안 날아가

전광석화처럼

공항을 강습, 3분 30

초 만에 테러리스트들을 모조리 사살하고 30분 만에 자기동포들 103명을 구하여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야말로 온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장렬하고도 감격적인 작전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 특전대원들의 동포사랑과 스피릿 넘치는 용기와 담대함은 오늘까지도 이따금씩 내 심장을 뛰게한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에 한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는데 그것은 특전대 지휘관이었던 31세 네탄야후 소령의 희생이었다. (훗날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베냐민 네탄야후의 친형) 엔테베 작전은 세계특수전사에서 인질구출작전의 대명사로 쓰일만큼 가장 대범하고 신속하고 정확했고 담대했던 작전이었으며



구출된 인질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국민들



윤성열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목사



특별히 그 모든 위험을 무릎쓰고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이스라엘 특전대 및 국민들은 오늘날 사면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와 영광을 온 세계에 전고히 세wig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지난 봄 특전사 대위와 여의사의 사라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35개국에 방영되어 큰 반응을 일으킨다는 기사가 점점 귓전에 가까이 가까이 들려오면서 좀 마음이 근질근질하던 어느 날, 80년대초 특전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캘리포니아 박목사님이 한번 불만하다고 권하시기에 나이들어 힘겹게 감당하고 있던 박사원 페이퍼 등등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과제들을 잠시 옆으로 밀고 잠깐만 접속한다는 것이 그만 추억의 미로에 빠져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온밤을 지새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여명이 밝나오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 비명이 나왔다. (16에피소드 중 15개를 보았으니...) 기도하려 눈을 감으니 잠시 나의 마음은 벌써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극중의 멋진 특전사 대위로 나오는 ‘송중기’ 보다 진짜 결코 덜멋있지 않았던(?) 당시의 나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끔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유익함을 얻곤 한다. 작가들의 탁월한 인간 이해에 대한 insight 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작가들은 어떻게 인간을 잘 이해하고 목사인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드라마 극중 한 장면 ‘유시민 대위’의 대사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것은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힌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려 하니 지휘관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방치하고 포기하려할 때 그 용감한 특전사 대위는 당당히 말한다. “개인의 죽음에 무감각한 국가라면 문제가 좀 생기면 어때? 당신의 조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내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불사하고 한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홀연히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었다.

타오스 스키 타운 미국의 베스트로 뽑혀



USA 투데이(Today)는 한달 넘게 독자들에게 실시해온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 최고의 스키 타운을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10월호에서 발표했다. 아메리카 베스트의 스키타운으로 뉴멕시코주에 있는 타오스(Taos)를 선정했다. 타오스 타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와 타오스 스키장이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급의 스키와 스노우보딩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스키장에는 110개의 트레일이 있고 한 겨울 적설량도 305 인치에 달한다. 스키장이 자리 잡은 계곡의 경치도 웅장하거니와

방문객들이 스키를 즐기고 나서 타오스 타운에 와서 즐길수 있는 이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및 역사가 함께 아메리카 베스트의 스키타운으로 뽑히게 한 것으로 믿어진다. 최근 'Top Value Reviews'라는 데이터 기반 웹 사이트는 성탄절 계절기간에 미국에서 가장 낭만적인 작은 마을 30곳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도 타오스가 낭만적 마을의 하나로 뽑혔다. ■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한가 잠시 생각해 본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투에서는 적의 총보다 오히려 오폭과 오인사격으로 인해 많은 아군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가 싸워야할 적을 식별하지 못하여 '대적의 문'(창 22:17)을 취하는 대신 이웃 교회의 문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인인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어 이와 같이 우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여 서로 넘어뜨리지는 않는가? 남의 터에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도 신의와 의리가 있는데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절단이 나있는 것은 아닌가?

1910년

오늘이구나! 1910년 10월 26일, 당시 조선 우리나라를 유린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용감하게 거사하여 총구에 불을 뿜었던 날, 그 날! 우리의 영원한 영웅 안중근 의사. 이듬 해 1911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의연히 죽음을 맞이했다. 불과 31세의 나이에 민족의 공분을 샀을 대가로 죽어야 했던 안중근 의사.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다. 조마리아 여사는 감옥에 갇힌 아들이 사형선고를 받자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강렬한 인상을 두면서 시작한다. 사형을 앞둔 아들에 대한 절망감이나 원망이 아닌 의연함과 확고함이 가득하다. 여기 그 내용을 보자.

조마리아 여사 편지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탄압 먹지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안중근 의사 편지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 문안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이 불초자를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뵈을 것을 바라오며 기도 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안의사의 장남) 는 장차 신부가 되게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옵시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그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뵈은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꼭 주교님을 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옵겠다고 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시옵소서.

1982년,

벌써 34년전 1982년 12월, 대학 졸업식 및 입관식까지 약 두달 반의 시간이 있어 나는 성경과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오’의 방대한 전집 10권을 들고 충남 논산군 은진면의 시골 과수원으로 내려갔다. 당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5년째 고생중이셨는데 5남 3녀의 막내였던 나는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책을 보며 애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밤이면 과수원 동산에 올라 시골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경이로움 자체인 별들의 우주쇼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 몸으로 바랐던 황홀했던 순간들...

그해 2월말 전남 광주 육군보병학교(상무대)에 입교하여 16 주간의 훈련을 받던 중 고민, 고민 끝에 결심하고 특전사에 지원한 것은 나의 인생 최대의 명예로운 결단이였다. 동기생 110 명과 함께 서울 거여동 특전사에서 그야말로 뼈를 추리던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정신과 육체는 거둡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잘 먹고도 20파운드가 떨어져 나간 4주간 공수훈련(세번의 주간 점프와 한 번의 야간 점프를 성공하면 가슴에 공수훈련 휘장을 받음), 7주간의 특수전 훈련 중 특히 담력 및 생존 훈련이라 하여 '밤' 한 마리를 잘근 잘근 씹어 먹어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자대에서 매일 아침 태권도와 특공무술로 가랭이를 찢어야 했고 또한 수요일마다 찾아오던 공포의 무장구보 '저승사자' "10km 무장구보", 특히 80파운드 이상의 군장을 지고 주로 산악지역을 급속행군으로 걸어 5일간 정말 거의 자지 못하고 천리를 가는 악명(?) 높은 소위 살인적인 '지옥천리행군', 그리고 초주검으로 갔던 해상침투훈련 등등등...

그러나 힘든 과정을 택했더니 좋은 일들이 따라오기도 했다. '83년 2개월씩 두 번 한미연합사 독수리훈련



미국 그린베레 팀원들과 함께(특전사령부, 오른쪽 네번 째 베레모 쓴 이, 1983년)

육해공해병합동계획단'에 통역장교로 파견되어 미군 그린베레 팀들과 같이 근무했던 시간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유익이었는지.



낙하산을 메고 수송기 C-123 안에서(앞줄 오른쪽이 필자)

특별히 자칭 '총잡이'라고 으시대는 사내들이 겨룬다는 여단 사격대회에서 M60 기관총 (람보가 쓰던)지대장의 명예를 걸고 '눈팅이'가 '밤팅이' 되는 것도 모르고 쏘아 붙여 250여명을 '제끼고' 만점으로 당당히 우승했던 감격! 그렇다. "하면 된다!"



('84년 청남대 경호군무시절 동료 지대장과 함께, 오른쪽이 필자)

추억 하나: '82년 8월 삼복더위에 당시 강원도 일대 험한 산속에서 5주간 전술훈련과 고등유격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6주차 4박 5일 동안 천리(400km 이상)를 걸어 부대로 복귀하던 살인적인 소위, '천리행군', 그때 경상북도 문경 남쪽 단산(해발 956m)을 넘어가던 중 내 팀원들이 물이 모자라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웬지 그때까지 마시지 않고 아끼고 있던 내 수통을 열어 그야말로 '피 같은' 물을 먼저 나의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모금 마시게 했는데(마지막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저 몇방울, 진짜다!) 참 신기하게도 나의 갈증은 어디로 간듯 내 마음속에서 뭔가 힘이 샘솟는 기쁨을 느꼈던 그 '오병이어'사건. 참 이상하다. 물은 내물이고 마시기는 내 부하들이 마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이 기뻐던가! 시원했던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추억 둘: 이모 병장, 그는 역세계 재수 없는 사내, 그도 그럴것이 논산훈련소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좀 편한 부대배치를 바랐는데 그를 부른 곳은 공포의 '특전사'(훈련소에서 이병 때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는 잠시 기절'했다고 했다.) 그가 특수전 3박 4일 전술훈련 시 나의 팀원이 되어 우리는 훈련 막바지 초저녁부터 아침 부대 복귀까지 100키로 급속행군(모형천리행군, 80파운드 군장에 시간당 6키로미터를 행군)을 하였다. 이병장은 새벽 한두시가 되니 완전 지쳐서 정말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자꾸 쳐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특전사 훈련에서 나오는 곧 죽음과도 같은 것, 나는 팀원들과 함께 그를 매섭게 부추겼지만 너무 힘들어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안된다. 가야한다.가야한다!" 내몸도 천근만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마침내 팀장이었던 내가 그의 배낭을 들쳐매었다. 먼저 내가 그렇게 하니 다른 팀원들 교대로 군장을 제공한다. 마지막 나는 내 로프로 그의 몸을 나와 연결하여 그 험한 산길을 뚫고 나아가 무사히 복귀했던 그 일! 어디서 그런 마음과 힘이 나왔는지 오래 전의 일이지만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냈다.

여러번 죽고 싶을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누렸다. 그렇다. 명예와 영광은 그냥 오지 않는다. 정산에 오르려면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소나기가 와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것이다.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고 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면 반드시 놀라운 유익이 따라온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이사야 45:3)

명예와 영광은 먼저 지불해야하는 땀과 눈물과 수고에 분명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다. 혹 이 글을 읽는 청년들이 있는가? 청년들이여! 인생의 젊은 날에 한번 도전해 보라! 한번 최고의 것에, 최상의 것에 힘들더라도 도전해 보라! 그러면 그대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것이며 평생 그대의 어깨는 기울지 않을 것이요, 허리가 굽지 않을 것이요,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지 않는다. 사자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분명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다. '맹자'에도 이런 말이 있다.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고천장강대임어시인야)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는 명을 내리려면, 必先苦其心志(필선고기심지) 반드시 먼저 그들의 심지(心志)를 괴롭히고, 勞其筋骨(노기능골) 其體膚(아기체부) 그들의 늑골(筋骨)을 수고롭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空乏其身(공핍기신) 그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行拂亂其所爲(행불란기소위) 하는 일마다 그들이 꼭 해야 할 일과 어긋나게 만든다. 所以動心忍性(소이동심인성)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益其所不能(증익기소불능) 자기가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이다.

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지생어우환이사어안락야) 우환 속에서는 살 수 있으되 안락 속에서는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 (12페이지에서 계속)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당신은 심지도 않는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 25:24)”라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꾸짖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령을 받은 종처럼 행동해야지요. 자발적인 의지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예정론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려는 책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라는 칼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교회 역사를 보면 목을 잘라 죽이기까지 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내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면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성경의 큰 부분을 잘라내고 가르치는 이단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무식하게 잘라내는 횡포는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

예수님, 특전사중의 특전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특전사중의 특전사이시다.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이 세상에 사랑과 구원의 복음의 낙하산을 타고 은밀히 침투하셔서 12명의 하늘나라 특전대원들을 훈련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장렬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그의 특전 용사들을 지휘하시고 있으시다. 최고의 특전사령관입니다.



2015년 5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폴란드)
(2015년 4월 “프라하 제1회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에 참가하여 꼭 가보고 싶었던
후 방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았다.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밀려왔던 참담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하랴. 감사하게도 그때 처음 알게되었던 안석환 목사님 초청으로 지난 5월 8박 9일간 캐나다에 다녀왔다. 안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및 몬트리올에 일곱 개의 교회를 세우신분인데 당시 네 분 전도사의 목사안수식 및 세미나에 나를 두명의 강사 중 하나로 초청해 주셨다. 나에게 참으로 과분한 자리이고 영광이며 받은 사랑과 격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라.

2016년 다시 앨버커키 : 광야 인생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빚대어 말할 때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버티기 힘겨운 까닭일 것이다. 뉴멕시코 광야 육지의 밧모섬 이곳 앨버커키에 산지가 어언 12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좀 철도 들고, 생각해 보면 받은 사랑, 누린 것도 많지만 가슴 시린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목사도 되어가나 싶다. 어려운 시간을 같이 가는 교우들이 참 귀하고 고맙다. 특히 지역에 연세들으신 흰머리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마음 뭉클하게 사랑스러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한 노인은 그 경륜과 지혜가 마을 하나와 같다 했고 또 노인 하나를 잃는 것은 마을의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하지 않는가? 정말 그렇다. 성경에도 센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하였다.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나이가 들어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말하기를 젊을 때처럼 사진에서 주름과 흰머리를 다 없애주겠다 하니 그 여배우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한다. “사진사 양반,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나 그거 얻는데 평생 걸렸다우” 참 귀한 마음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분이 그런 경륜을 이룬 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곳이라는 뜻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 모두에게 임하여 어려운 이민 생활을 승리하여 존귀하고 복된 인생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도 아침 떠오른 태양이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지만 중전을 운행할 때 밝고 빛나는 광명이 되고 또 저녁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을 남기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하는 바이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로버트 쉐러(Robert H. Schuller (1926-2015))-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
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저쳐 넘
어쳐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
느니라”(잠언4:18-19)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한의사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505-764-1900)

회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편집 후기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한해동안도
광야의 소리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원고를 써주신 집필자 여러분의 봉사와
광고를 통해서 베푸신 재정적 후원, 편집에서 배포
하는 일을 담당 해주신 봉사, 뉴멕시코 한인회를 위
해 일하신 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등에 힘입어서 광
야의 소리도 한인사회와 함께 커가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2017년 새해도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께 축복
의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편집부를 대표해서 이경화드립니다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7년 1/2월호

발행일: 2017.1.1.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The Garage AUTO REPAIR



'앨버커키에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 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모든 종류의 차량 정비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디젤 트럭까지
고품질 부품만을 사용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술진

30년 경험의 마이크 조와 10명의 전문 기술진
정확한 진단과 정비

Fleet Services



무료 견인/견적



고객만족서비스



ASE Certified Master Technician
각 분야의 전문가
(전기, 유압 차, 일본 차 등)

- AAA 지정 서비스 업체
- AC 일코 프론테어 서비스 업체
- 뉴멕시코주 버날리오 카운티
앨버커키시 차량 정비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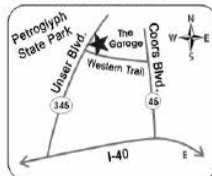
문의사항 (505) 352-5152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근무외 시간에 차량을 맡기실 경우,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견치함에 열쇠를 넣어주세요.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산타페 자판 컨택션 관광회사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안내할 가이드를 찾습니다

관광 날짜: 5월 17일~20일 (4일간)

경험있는 분에게는 여행안내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연락처: Shizuko Kobayashi

(505) 680-0489

santafejc@msn.com

Santa Fe Japan Connection, Inc.
TEL/FAX 505-471-5022
3541 MINNESOTA LANE, SANTA FE, NM 87507
www.santafajapan.com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Sat
4:00-9:00 Sun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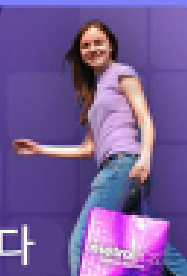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